

지원자 스펙 갈수록 출중, 조기지망 증가

2012년 대입 트렌드

올해 존스 홉킨스에서 입학 지원서를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지원자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완벽하고 놀랄 만한 최고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RSI 출신들은 물론이고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이 CTY 혹은 EPGY 코스를 수 학했다. 올해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2013년도 입학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시니어 어드미션 디렉터인 존 버니는 지원자들은 확실히 올해 훨씬 그 스펙이 좋아졌고, 특출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 급증했으며, 특별히 소수계와 유색인종의 지원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스펙이 강화되고 있다

미전역을 통틀어 입학 사정관들이 올해 입시 트렌드를 읽는 걸 보면 지원자들의 경쟁력 있는 스펙과, 뛰어난 성적, 터프한 코스 선택, 최우수군에 속하는 SAT/ACT 성적과 매혹적인 과외활동의 성과들과 함께 두 가지의 확실한 트렌드가 생겨났다는 반응이다.

그 첫째는 다양한 지원자군의 증가이며, 두 번째는 각 대학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지원자들에게 불합격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들 대부분에게 보류 통보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몇몇의 대학들 예를 들면 조지타운 대학의 경우는 조기전형에 부활시킨 탐 명문 대학(하버드, 프린스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군에 속하는 지원자들이 조지타운에 지원서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했을 경우 등록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기 합격생을 예년처럼 많이 확보해 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찰스 테론 입학처장은 밝혔다.

조기전형 합격자 다양화

1월13일자 뉴욕타임스에는 'As a Broader Group Seeks Early Admission, Rejections Rise in the East'라는 제목으로 조기전형 입시 트렌드에 관한 내용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그동안 미동부의 엘리트 그룹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조기전형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과 퍼블릭 스쿨 재학생, 운동선수, 소수 민족 그룹, 외국 학생들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그동안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편애하지 않았던 생각되었던 동부의 명문 사립고교나 프렙스쿨 학생들의 불합격률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마다 좀 더 다양한 그룹을 품으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대학이 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맨해튼 지역 유명한 프렙스쿨인 스펙스 스쿨, Brearley School 등에서 우수한 SAT 성적 등으로 예전 같으면 충분히 예일대학에 들어갔을 법한 학생들이 조기지원에서 보류 통보를 받고 의아한 학부모들이 이제 명문대 입학 사정관들이 뉴욕시의 명문스쿨 학생들에게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것 같다고 언짢아했다. 올해는 특히 대부분 탐 명문 사립 고등학교나 프렙스쿨에서 지원한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조기전형에서 무더기로 불합격되거나 differ를 받은 사례가 많아졌다.



수험생들의 스펙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입시에 뛰어들 수험생들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

갈수록 터프한 코스선택·과외활동 차별화 명문사립대 합격자 인증·지역 다양화 경향

입시정보에 탁월한 탐 명문 보딩스쿨 시니어의 80%가 오픈 액션이나 오픈 디지전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백인과 부유층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던 조기전형의 틀이 급속하게 깨지고 있다.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는 첫 세대인 학생들도, 저소득층 자녀들도 다양한 입학 재정정보에 눈뜨기 시작했고, 전에는 탐 명문 보딩스쿨 카운슬러만이 알고 있던 조기전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아내어 이용하기 시작했다.

조기전형 지원 계속 증가

따라서 몇 년 사이에 조기전형 지원자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외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기전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45% 이상을

조기전형으로 채우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기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듀크대학을 예를 들면 2005년 캘리포니아와 외국 학생은 겨우 100명 정도가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조기지원에만 400명이 지원을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UC는 학비를 계속 올리고 있어 차라리 동부의 사립대학으로 재정보조를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는 서부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많은 사립대학들에는 몇 년 전에 비해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더 많은 조기지원자들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 출신 학생들은 지난 4년간 25%나 늘어났고 2011년 통계로 29만명이 넘는다. 중국 학생은 5만7,000명에서 10만명으로 증

가했다.

또한 시카고 대학은 2005년 2,774명, 2008년 3,776명이었던 것이 2011년 8,698명으로 더욱 가파르게 지원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포모나 칼리지도 지난해에 비해 3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들은 캠퍼스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채우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하면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한 명문 사립대학들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지역으로 그 합격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하버드 조기전형 발표 후 입학처장은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평균적으로 다양하게 합격자가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원자들은 단지 성적과 스펙이 아닌 다양성과 함께 독특한 매

력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많은 탐 명문 고교와 프렙스쿨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탐 프렙스쿨로 알려진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학생 4명이 2007년에 시카고 대학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22명이 시카고 대학 조기전형에 지원했다. 이렇듯 명문대 입학에 대한 불안감은 안전 지원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며 이것은 내년에도 이어지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

UC는 정부의 교육비 삭감으로 그동안 타주학생 유치에 애를 써왔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은 것도 한 몫이 돼 외국 학생들의 지원과 함께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UCLA의 경우 9만명이 넘었고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올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www.TheAdmissionMasters.com



제니 김
(현 존스 홉킨스대 입학사정관)

지난해 미 대학 신입생 5명 중 1명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도 학비부담 등을 이유로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71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장기불황에 따른 여파로 분석됐다.

UCLA 고등교육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원하던 1순위 학교에 합격하고도 진학하지 못한 신입생은 18%를 기록했다. 1순위 대학에 실제로 진학한 신

대학 신입생 5명 중 1명 진학포기

장기불황 학비부담 등 이유 등록 못해

입생 비율은 58%를 기록해 1975년 역대 최고 기록인 80%와 큰 격차를 보이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전국 204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20만4,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실제로 유·무상

보조금과 장학금 등을 포함해 학비지원 혜택을 받은 입학생도 전년대비 4% 포인트 줄어든 70% 수준에 머물렀다. 때문에 신입생의 12%는 재정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 56%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대학 신입생들은 과거 세대보다 진보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학업시간도 과거 세대보다 길고 AP과목 이수율은 높은 반면 음주 비율은 낮았다.

자신을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신입생은 28%, 보수라고 답한 학생은 21%를 기록했으며 대다수는 중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71%를 기록해 2009

년보다 6.5% 늘었다. 특히 보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합법을 찬성하는 비율도 2009년 34%에서 지난해 43%로 크게 늘었다.

또한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교육 기회 제공에 반대하는 신입생은 43%를 기록해 4% 포인트 감소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입심사 우선권 부여에 찬성하는 비율은 5% 포인트 늘어난 42%를 기록하며 1971년 이후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이정은 기자)

세터빌 뮤직 센터/판매
레슨/수리

세터빌 뮤직 센터/판매 레슨/수리

악기렌탈

페어팩스, 세터빌 지역 학교 선생님들과 레슨 선생님들께서 추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악기에 따라 조기 품질 될 수 있습니다.)

레슨

각 악기별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1:1로 지도하는 레슨.
피아노, 성악, 기타, 베이스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색소폰, 클라리넷, 드럼, 더블베이스, 바순 (30분 기준 \$27-\$30 악기별로 다름. 45분 1시간도 가능)

악기수리

현악기, 관악기 수리
악기별 전문 수리샵에 의뢰 합니다. 수리전 비용 알려 드립니다.
활털교환: 바이올린, 비올라-\$40 첼로-\$45

악보, 악세서리 판매

악보, 스트링, 리드, 악보대 ...

Centreville MUSIC SHOP

위치: 세터빌 그랜드마트웨이 자이언트 바로 맞은편.
Traffic 없을 시 애난데일, 맥클린 25분 거리. Web: CentrevilleMusic.com

Eastman 바이올린 딜러

고품질 중저가(\$500+) 핸드 메이드 바이올린 취급

14215D Centreville Sq. Centreville, VA 20121
Phone: 703.988.0002

Oxford Academy
"Make the Best Better"

“인턴쉽도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옥스포드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자극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돕습니다.

Oxford's Internship prep. Program

▶ Internship prep. 기관 - 국무부, 백악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Johns Hopkins, George Town Medical Center, NIH,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Asian Business Council, Fairfax County 정부, Children Law Center, etc.

옥스포드 아카데미 수업

▶ 명문대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반

▶ 현장 체험 학습

▶ 대통령 연설문으로 배우는 Public speech반

▶ 명문 사립고 준비반

▶ National Essay Contest 준비반

▶ Intel 과학 경시대회 준비반

▶ 논리력을 높여주는 Analytical Writing

▶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

** Fellowship prep. Program- U.S. Congress의 Full Time Staff 지원준비반 **

영재 여름 프로그램: 하버드대학, 보스턴대학, 코넬대학, 스텐포드대학, UCDAVIS, Clemson대학, 메릴랜드대학, 워싱턴대학 in St. Louis, and etc.

옥스포드 Teaching staff

▶ 과학, 정책, 예술, Public Health,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지도

옥스포드 아카데미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 301, Annandale, VA 22003
Tel: 703-256-4970 • info@oxfordacademia.com